영조기계번역에서 영어동사문형을 리용한 입구문의 문장해석과정에 대한 분석

김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자면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인민경제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중보판 제11권 138~139폐지)

세계선진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받아들이는데서 과학기술자료들을 신속정확히 번역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조기계번역에서는 입구문으로 되는 영어문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영어동사문형사전정보에 기초한 입구문에 대한 문장해석과정에 대하여 분 석하려고 한다.

영어문장에서 술어동사구는 그 구성에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각이한 동사문형으로 쓰인 동사들이 동사문형에 지적된 인수외에 여러가지 수식어들을 더 가질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에서 인수란 동사문형의 구조에 참가하는 동사를 제외한 어휘적단위들을 말한다.

실례로 VP10《타동사 + 명사》류형의 동사들은 술어동사와 보어사이에 놓인 자립부사(구)의 수식을 받을수 있으며 술어동사의 앞 혹은 보어의 뒤에 놓인 자립부사(구)나 전치사구 혹은 부사절의 수식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영조기계번역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문장해석과정은 크게 두단계로 진행된다. 무엇보다먼저 술어동사구해석과정이 있다.

술어동사구를 해석한다는것은 곧 술어로 되는 동사를 먼저 확정하고 그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와 다른 어휘적단위들(즉 동사가 고정적인 동사문형을 이루면서 가지게 되는 성분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술어동사구를 해석한다는것이다.

술어동사구해석과정은 크게 두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에 해당한 인수들이 모두 결합된 술어동사구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인수가 추출되여 다른 자리로 이동한 술어동사구들 도 해석되게 된다.

례: The hotel provides a postal service for guests.

(그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우편봉사를 제공합니다.)

What does this hotel provide for guests?

(이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우의 첫번째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사 provide가 어떤 인수들을 거느리는가 하는 것 즉 이 동사가 a postal service와 전치사 for를 포함해서 다른 인수 guests를 거느린다는 구조 즉 영어동사 provide의 VP19류형을 해석하게 된다.

두번째 실례는 동사 provide가 거느리는 보어인수 what가 문장의 앞으로 추출되여나

간 특수물음문구조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동사 provide의 문형가운데서 VP19류형과 VP12A1류형이 다같이 해석구조에 들어오게 된다. 다시말하여 이 단계에서는 동사 provide의 《동사+명사+전치사+명사》의 VP19류형과 함께 《동사+전치사+명사》의 VP12A1류형의 구조가다 가능한것으로 해석되게 되며 그가운데서 어느 문형구조가 정확한가 하는것은 이 단계에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들에서 해석되게 된다.

둘째 단계는 모든 인수들을 거느린 술어동사구에 대한 가능한 수식어들의 련관관계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장의 술어동사구에 대한 각이한 수식어들의 해석이 진행된다.

례: This problem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이 문제는 오래동안 연구되여왔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술어동사구 study에 대하여 for a long time 이 수식어라는것을 해석해내게 된다.

이처럼 술어동사구해석단계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어휘적단위들의 가능한 모든 결합관계를 해석한 다음 문장해석단계에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으로 문장해석단계가 있다.

문장해석단계는 크게 영어문장류형에 따라 문장구조를 해석해내는 단계와 추출되거나 이동된 인수요소들과 동사구사이의 의미적관계를 해석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두 단계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진행되는 단계이다.

영어문장류형에 따라 문장구조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영어문장이 서술문인가, 명 령문인가, 물음문인가, 감탄문인가 하는것을 밝히고 동사와 그가 거느리는 인수들과의 정 확한 의미적련관관계를 해석해내게 된다.

문장속에 능동형구조로 되여있으며 관계절을 가지고있지 않는 서술문과 명령문해석단계에서는 술어동사구해석이 기본으로 된다. 그것은 이런 서술문과 명령문에는 동사와 직접적인 련관관계를 가진 인수들이 이동되여 위치를 바꾸거나 추출되여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변형형태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해석단계에서 기본으로 되는 단계는 동사와 직접적인 의미적련관관계를 가지는 인수의 이동형태를 해석하는 단계와 동사와 직접적인 의미적련관관계를 가지는 인 수의 추출형태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동현상이 나타나는 문장류형들로서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이동하여나가는 일반물음 문과 동사와 직접적인 의미적련관관계를 가지는 성분이 이동하는 감탄문을 들수 있다.

례: Is that student Yong Chol?(저 학생이 영철입니까?)

Is the book interesting?(그 책이 재미있습니까?)

Are you writing a letter?(당신은 편지를 쓰고있습니까?)

Have you got a pencil?(연필을 가지고있습니까?)

Does he often go to the swimming-pool?(그가 자주 수영장에 갑니까?)

How beautiful that lake is! / What a beautiful lake that is!(저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be, have동사로 시작되는 일반물음문에서는 이 동사들이 주어앞으로 이동되기때문에 be,

have 동사를 주어의 뒤에 다시 이동시켜 입구문의 표준화를 실현한 기초우에서 문장해석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

결국 우의 실례들에서 첫번째 실례는 《That student is Yong Chol.》로 되여 VP9류형, 두번째 실례는 《The book is interesting.》로 되여 VP8A류형, 세번째 실례는 《You're writing a letter.》로 되여 VP10류형의 현재지속형, 네번째 실례는 《You have a pencil.》로 되여 VP10류형으로 해석되게 된다.

do 동사로 시작되는 일반물음문에서는 do 동사의 시칭 및 수조건을 주어뒤에 오는 기본 동사에 적용하여 입구문의 표준화를 실현한 기초우에서 문장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how, what로 시작되며 문장속에 술어동사가 있는 감탄문에서는 동사와 직접적인 련 관관계를 가지는 술사가 문장앞으로 이동되여나가기때문에 how, what를 수식어로 전환시키고 주어앞에 있는 부분을 동사뒤로 이동시켜 입구문의 표준화를 진행한 다음에 완전한 문장구조가 해석되게 한다.

결국 우의 실례들에서 첫번째 감탄문은 《That lake is very beautiful.》로 되여 VP8A류형 으로, 두번째 감탄문은 《That is a very beautiful lake.》로 되여 VP9류형으로 해석되게 된다.

관계절을 포함하고있는 문장들에서는 동사와 직접적인 의미적련관관계를 가지는 어휘적단위들이 추출되여 동사와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의미적으로 매우 가깝기때문에 이런 문장구조들을 구조-문법적으로만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동사와 그의 인수들과의 의미적련관관계를 해석하여야 한다.

영조기계번역의 문장해석단계에서는 동사와 추출된 그의 인수들사이의 의미적련관관 계를 해석하는 단계가 기본을 이룬다.

문장해석단계에서는 우선 특수물음문에서 의문사와 술어동사구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례: What does this hotel provide for guests?

(이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술어동사구해석단계에서는 영어동사 provide에 대하여 두개의 문형구조 VP19류형과 VP12A1류형이 해석된 조건에서 의문사 what가 동사 provide와 어떤 의미적관계를 가지는가를 해석하는것이 기본으로 된다. 우의 실례에서 의문사 what는 문장앞으로 추출되여 이동해나간 동사 provide의 보어이기때문에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려보내여 입구문의 표준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여 《This hotel provides what for guests.》라는 문장구조를 얻어낸 다음 영어동사 provide의 정확한 문형구조가 《동사 + 명사 + 전치사 + 명사》구조의 VP19류형이라는것을 해석하게 된다.

문장해석단계에서는 또한 관계절에서 선행사와 관계사, 관계절의 술어동사구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례: Did you see <u>the letter which</u> came today?(당신은 오늘 온 편지를 보았습니까?) She has <u>three sons</u>, one of <u>whom</u> I have met before.(그 녀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는 그중 한 아들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우의 첫번째 실례에서 관계절안에 주어가 없으므로 선행사 letter는 관계대명사 which 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관계절에서는 which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결국 선행사 letter가 관계절에서 주격으로 되며 관계절에서의 동사문형은 《주어 + 자동사》구조의 VP2류형

으로 해석되게 된다.

우의 두번째 실례에서 관계절안에 주어가 있고 타동사 meet뒤에 보어가 없으므로 선행사 three sons는 관계대명사 whom에 해당되고 관계사 one of whom은 관계절에서 보어로 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며 결국 관계절의 술어동사구와는 《주어 + 타동사》구조의 VP10류형으로 해석된다.

문장해석단계에서는 또한 추출되여 피동형구조에서 문장의 주어로 된 능동형구조때의 술어동사의 보어와 술어동사구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례: The students were told to get ready for an exam.

(학생들은 시험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우의 실례에서 술어동사구는 《be동사 + 동사의 과거분사형》구조로 되여있으며 동사 tell의 뒤에 있던 보어가 주어위치로 추출되여나갔으므로 본래의 구조는 《동사 + 명사 + to미정사(구)》구조의 VP30류형인것이다. 그리고 술어동사구는 《be동사 + 동사의 과거분사형》 구조의 VP36류형에 의하여 피동형술어구조로 해석된다.

문장해석단계에서는 또한 형용사(구)가 추출된 문장에서 동사와 그의 인수들사이의 관계를 해석한다.

례: I don't know how difficult it is to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푸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을 모릅니다.)

우의 실례에서 접속절안에서의 형용사 difficult는 be동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그의 술 사로 되고있지만 접속절안의 문장속에서 주어의 앞으로 추출되여있으므로 이것을 be동사 뒤의 본래위치로 보내여 입구문의 표준화를 실현한 다음 《동사 + 형용사》구조의 VP8A류 형으로 해석되게 한다.

례: Strange as it may seem, there are still file systems.

(그것이 이상해보일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일체계들은 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접속사 as가 이끄는 부문에서 형용사 strange가 문장의 앞으로 추출되여있지만 이 형용사는 동사 seem의 술사이기때문에 《동사 + 형용사》구조의 VP8A 류형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영어동사문형을 리용하여 하나의 동사문형이 병렬구조로 련결되여 이루어지며 병렬구안에서 동사의 생략현상이 일어나는 문장구조도 정확히 해석할수 있다.

례: He gave three pencils to Mary, two to Tom, and four to Peter.

(그는 매리에게 3자루, 톰에게 2자루, 피터에게 4자루의 연필을 주었다.)

우의 실례는 전체적으로는 《동사 + 명사 + 전치사 + 명사》구조의 동사문형이 쓰인 문장이며 3개의 구조가 병렬로 련결되여있으면서 두번째 구조부터 동일한 영어동사와 직접보어의 수사를 제외한 동일한 명사부분이 생략되여있는 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종전에는 생략형태를 매우 처리하기 힘든것으로 보았으나 동사문형정보를 리용하여 뒤의 부분에 동사 give가 생략되여있는것을 give의 VP19류형으로 해석할수 있게 되였으며 따라서 이런 형태의 생략구조를 원만히 해석해내게 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